

김정호(㈜봉하마을 대표1)) 1차 구술

1. 구술자: 김정호
2. 면담자: 강희영
3. 촬영자: 이대희
4. 구술일자: 2012년 7월 25일
5. 구술장소: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구술자 사무실
6. 구술분량: 12분 59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퇴임 후 봉하마을 친환경 생태농업 추진과정

구술자 : 그 다음에 한 일(1)년쯤 지나서 ‘친환경농사 이거 해보야 안 되겠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서둘지 마라.’ 뭐. 근데 그렇게 친환경농사를 우리가 해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 생각하셨던 거는 당신이 국정 수행을 할 때 농정에 대해서 몇 가지 방향을 정한 게 있어요. 우선은 친환경으로 가야된다. 에프티에이(FTA)나 개방농정은, 농산물시장 수입개방은 불가피하다. 우리가 통상국가로서 우리 공산품은 팔아먹으면서 우리 농산물시장 지킨다고 우리 이걸 막아둘 수는 없다. 그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 농민을 희생시킬 거냐, 대안이 뭐냐, 되게 많이 고민하셨는데 그전에 김대중 정부나 김영삼 정부나 우루과이라운드나 뭐 하여튼 더블 유티오(WTO)체제에서 한국 농업의 미래에 대해서 이런 저런 대안들이 있었는데 실패했지요.

우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하면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생각이 뭐냐면, 친환경농업의 확대 강화다. 두 번째는 고품질 가공이다. 세 번째가 이거를 브랜드 육성을 해야 된다, 특히 로컬 브랜드(local brand). 근데 그런 방향을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사례가 잘 안 나왔어요. 따져보니깐, 들여다보니깐 농업 쪽에 그런 지원을 할려고 해도 정작 농촌에 사는 농민들이 그런 기획력이나 실행력이 없다. 다 뭐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진흥청이나 공무원들이 해줘야 된다, 이거는. 공무원들은 기본예산 받아가지고, 용역주고, 또 뭐 적당한 업체 선정해가지고 또 그럴만한, 그럴듯한 소위 요건만 갖추어서 예산 나눠주면 끝이라 이거야. 근데 그게 제대로 농업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또 그런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1) 2012년 7월 구술 당시 현직.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지켜봐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담당자 바뀌어버리고 또 그러다 제도 바뀌어버리고 이러면 내 공회전 돼버린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귀농을 하면, 귀향을 하면 우리가 모범을 보여 보자. 이런 생각과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쉬고 천천히 쉬고 파악해가 일(1)년 뒤쯤에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천팔(2008)년도 이(2)월 이십오(25)일 날 와가지고 그때는 농한기였기 때문에 당장에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 사(4)월 달 딱 가니까 눈에 뭘 뭐 눈을 갈아엎고 그걸 춘경(春耕)이라고 해요. 봄갈이. 퇴비 내지는 비료 뿌리고, 퇴비 뿌리는 사람 별로 없었지요. 소똥 뿌리는 사람 있었지만. 그 다음에 농사 준비를 한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잖아요? 며칠 있으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뭐 여기 책임주체도 없고 그럴 계획과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당해 연도부터 뭐 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했는데. 어쨌든 제가 밖에 일을 하게 되는데 인제 그런 일정, 농사 일정들을 보면서 만일에 지금 안하면 일(1)년은 그냥 화포천 청소나 해야 되고 봉화산 숲이나 가꿔야 되고 농사는 화학농약, 화학비료 치는 관행농업을 일(1)년간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대통령 내려와가 아무리 환경을 살리고 해봐도 주업이 벼농사고 농사 쪽에서 친환경으로 안하고 곁가지로 화포천 생태공원 만들자, 생태하천 만들자, 뭐 봉화산 숲 가꾸기 해봐야 이거는 그 비본질적이다 말아야. 그것도 의미가 있고 매우 필요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그냥 뭐 주거환경이나 마을 숲, 마을하천 이런 정도로는 본질을 그 벗어난 거다. 근데 조금이라도 내년에 잘하기 위해서도 올해 조금이라도, 실험적이라도, 공부하는 차원에서라도 하긴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피해갈 손 없을 것 같다.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부하기 위해서라도 조금은 우리가 실험적으로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예산을 끌어와서 지원, 팍팍 지원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뭐 자기 땅 자기 농사짓는데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자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할 사람이 없었는데, 내가 문제제기는 그렇게 했고. ‘누가 그럼 하겠노’ 이렇게 된 거지요. 그래서 뭐 말 꺼낸 사람이 책임져야지. 저라도 그럼 하겠다. 근데 내가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서 그 뭐 배워가면서 해야 되는데, 대통령님이 뭐라고, 못한다고 뭐라고만 안하면 내가 하고 뭐라고 할 것 같으면 안하고. (노 대통령이) ‘그라면 뭐라 안 할테니까 쪼개만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이천팔

(2008)년도에 오리농법²⁾ 이만사천육백(24,600)평을 하게 된 거예요. 무슨 농법이 좋겠노. 친환경농법 조사해보니 여러 가지 있어요. 그때만 해도 오리농법 우리는 잘 몰랐어. 근데 어쨌든 화학비료, 화학농약 안치고 하게 되면 제일 큰 문제가 제초. 풀을 잡는 거든. 그럼 풀 다 뽑아야 되거든. 풀을 베거나, 논이던 논두렁이든. 근데 그때만 해도 그게 얼마나 지독한 전쟁이 될 줄 몰랐죠. 아이, 그게 베지 뭐 뽑지. 근데 (풀들이) 어릴 땐 잘 몰라. 이놈들이 장마철 지나고 나면 하루가 다르게 풀이 크는 거야. 풀 뽑았어. 뒤돌아서면 다음에 저 밑에 또 나는 기라. 일(1)주일 만에 풀이 나버려요. 오(5)일에서 일(1)주일 만에. 근데 논에 들어가서 일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중심을 잃고 빨밭에. 이제 나중에 알았지만 제초제를 왜 치는지. 제초제 안치고 친환경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다는 거. 그것도 논 한 구역이 아니고 몇 천(1,000)평, 뭐 몇 만, 이삼만(20,000~30,000)평 이래 짓는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해요. 어쨌든 전체로 해서 열세(13)명이 이만사천육백(24,600)평을 조직을 했어요.

풀은 어떻게 잡나. 제초제 안치고. ‘우리는 뭐로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옛날에 여기가 저습지, 오리가 많이 날라 왔고, 오리가 진짜 지금도 와요. 오는데, 이전만 못하지 그래서 지명이 오리방이라는 데도 있는데 오리농법을 하자. 그러면 상징성이 크다. 오리라는 놈이 농약을 친데서는 먹이가 다 죽어버리니까 확실히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홍보효과도 크니까. 또 옛날에 그런 지리적으로 오리가 많이 살았던 곳, 도래했던 곳이라 오리농법 하자. 그래서 결정을 했어, 오리농법으로. 그래가지고 홍성의 문당리 주형로³⁾씨한테 오라 해가지고 대통령께 브리핑도 하고 우리 작목반 열네 명 교육도 시키고 우리가 가보기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착착 했어요. 근데 우리가 오리를 입식(入植)할라고 준비하는 시기에 그 해에 에이아이(AI) 조류독감이 발병한 거예요. 실제로 오리들은 뭐 독감을 안 걸려요. 걸려도 야생은 안 걸려요. 이제 사육하는 놈들은 밀식을 하기 때문에 가뉘두고, 말 그대로 에이아이(AI)는 호흡기 질환이

2) 아침에 오리를 논에 풀어 놓았다가 저녁에 불러들이는 방법. 벼농사에서 오리농법은 잡초 제거뿐만 아니라 벼 물바구미 제거, 쓰러짐 및 잎집무늬 예방과 분뇨배설 등으로 벼 생육에도 좋다.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atec.boseong.go.kr>) 참고

3)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 홍성환경마을은 1979년에 오리농법 전도사인 주형로씨가 처음으로 유기농법을 시작. 온 마을 구성원들과 함께 오리농법을 통한 환경농업을 WTO 대응방안으로 다른 마을보다 일찍이 실천했다. 환경농업이 현재 농업의 대안이 아니라 근원임을 인식, 전국의 많은 농민들과 지도자들이 견학과 교육을 받기 위해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외국에까지 소개되어 외국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찾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마을운동을 하는 대표들과 함께 주민들에게 ‘준비하는 마을 생각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보여주어 농촌에 희망을 갖게 해주고 있다. 홍성 문당환경마을 홈페이지(<http://mundang.invil.org>) 참고

에요 사람으로 치면. 밀폐된 공간에서 많이 해놓으니까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감기에 걸려요. 오리의 감기거든요. 말 그대로 오리의 독감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어떤 바이러스인 줄 모르니깐 그게 인제 치료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열병에 오리가 집단 폐사하고 하는데 주로 닭이 많이 걸리고 특히 밀식 사육하는 거. 오리는 특히 야생오리는 괜찮거든요. 근데 뭐 인제 김해에도 조금 발병을 했어요. 그러가 결정은 했는데 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만일에 여기서 하다가 봉하에서 조류독감이 발병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여기 반경 삼키로(3Km)내에 다 살처분해야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대통령 오자마자 한다고 한 게 안 그래도 사람들 많이 오는데 그게 감염 뭐 가능성이 큰 곳이, 발병요인이 큰 곳인데 안하는 게 상책이지 뭐 할라고 그거 하노, 다른 대안도 있는데(그런 반발도 있고). 그래 이제 대통령님한테도 말씀 안 드릴 수 없었지. ‘이거 어떻게 할까요?’ 다 반대하고 우리 내에도 찬반논쟁 양론이 생긴 거지, 참모들도. (대통령이) ‘그러면 풀은 월로 잡나?’ ‘우렁이 넣으면 된 겁니다.4)’ ‘그럼 우렁이 넣으면 되겠네. 지금 추세는 어때?’ ‘지금 약간 소강상태입니다. 잡혀가고 있는데 더 이상 확산은 안 되고 있고. 이게 한 이십(20)일만, 이십(20)일 동안만 발병을 안 하면 고비는 넘기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하향세라 안정화되고 있어서.’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노?’ ‘유(6)월 오(5)일 정도까지는 모를 심어야 되니까 십(10)일날, 일주일 뒤에 오리 입식할 때 그때까지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가) 오(5)월 중하순입니다. ‘그러면 뺑아리는, 오리는 이미 키우고 있고 추세는 그렇게 진정 국면에 있다고 하니깐 그 다음에 뭐 오리 넣으면 되니까 함 해봐라.’

대통령님이 하라 해서 가능했던 거예요. 만약 대통령께서 그거 뭐 어찌될지 모르겠는데 괜히 소리만 시끄럽고 방법이,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지마라, 하지말자 이랬으면 봉하마을에 오리는 없었던 거예요. 행정기관에서 막 반대하고 농민들도 뭐 오락가락 하는 상황에서 ‘정호 판단이 맞다. 그런 거 같으면 하면 되지. 그러다가 문제 생기면 우렁이 넣으면 되고 뭐 쪼릴 게 뭐 있노.’ 아주 작은 문제 같지만 봉하마을의 친환경농사 또 오리농법의 물고를 그렇게 해서 튼 거예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해서 이게 처음 첫 해에 아무런, 정말 맨땅 헤딩하면서 그렇게 역경을 헤쳐

4) 새끼 왕우렁이가 풀을 잘 먹는 습성을 이용하여 벼농사 재배동안에 제초부분을 해결하는 친환경 농법.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atec.boseong.go.kr>) 참고

나왔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사십오만(450,000)평으로 늘었지요. 이만사천 육백(24,600)평이.

■ 구술자 주요이력

1960. 제주 추자면 출생

1979.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입학

1997.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87.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조직교육부장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부산본부 선전국장

공정선거감시단 조직차장

1988.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부산) 조직국장

2003.02 - 2008.02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기록관리비서관

2008.10 영농회사법인 (주)봉하마을 대표(2012년 현재)

1984년 부산대 재학 중 부산시 민정당 지구당사 점거 시도로 구속되어 변호사와 의뢰인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1987년 부산민주시민협의회, 국민운동본부, 공정선거감시단 활동을 함께 했다. 1988년 노 대통령이 결혼식 주례를 맡기도 했다. 노 대통령 재임 중에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기록관리비서관으로 일했다. 퇴임 후 봉하마을에서 친환경생태농업과 마을 가꾸기 등을 실천해왔으며 2012년 현재 (주)봉하마을 대표를 맡고 있다.